

한나라당 지방선거 참패

민주 광역 8곳·수도권 기초장 압승

6·2 민심

관련기사 2·3·4·5·6·7·8·9면

6·2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천안함 사태로 인한 '북풍'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선택했다. 16개 광역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초 예상을 깨고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약진 양상을 보였다.

3일 새벽 1시 현재 지방선거 개표 결과, 한나라당은 전국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경기지사(김문수), 대구시장(김범일), 경북지사(김관용), 부산시장(하남식), 울산시장(박맹우) 등 5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광주시장(강운태), 전남지사(박준영), 전북지사(김완주) 등 호남 3곳과 인천시장(송영길)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되는 등 8곳에서 당선에 확정되거나 앞서갔다. 민주당은 특히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한나라당을 압도하며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은 대전시장(염홍철)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서울시장, 제주지사, 강원지사, 충남지사, 경남지사, 충북지사 등 6개 광역단체장 선거는 3일 새벽 1시 현재 초박빙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 민심이 거대 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싸움이 등 1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사실상의 한나라당의 '패배'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선거 패배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 주장 등 상당한 내용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강력한 견제가 확인된 만큼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 등 향후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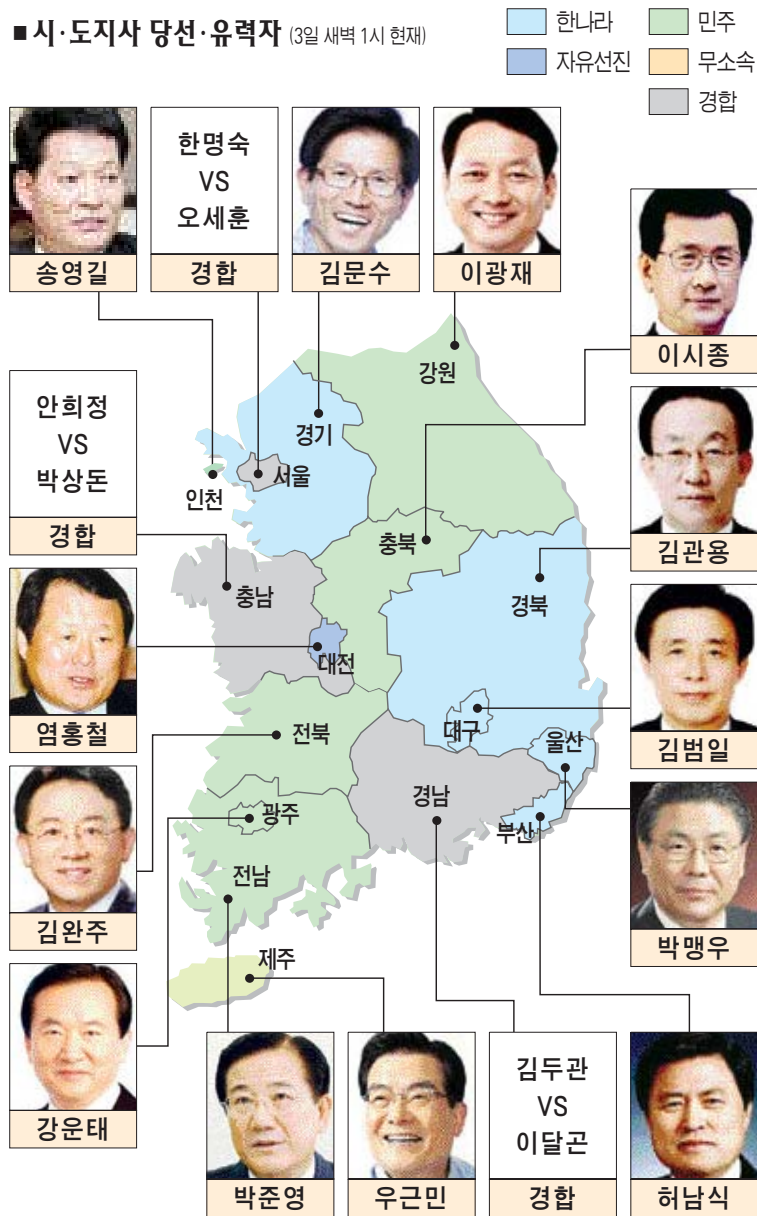
민주당은 호남권 광역단체장과 인천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데다 서울시장, 충남지사, 충북지사, 강원지사 등 3~4곳에서 경합을 벌이면서 선전했다. 경합지역에서 2곳 이상 승리할 경우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으며 2년 후 정권 탈환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7~8곳에서 당선권에 근접하는 등 '뒷발의 심판'이 이뤄질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16개 광역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들이 상당수 당선 안전권에 들면서 선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시·도지사 당선·유력자 (3일 새벽 1시 현재)



광주·전남 무소속 기초단체장 6~8명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바람이 일면서 6~8명의 무소속 기초단체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일 오전 1시 현재 전남에서는 순천 노관규, 광양 이성용, 화순 전완준, 강진 황주홍, 곡성 허남식, 신안 박우

랑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어 당선에 유리한 상황이다.

또 광주 서구에서 전주언, 여수의 김충석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상황이라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전한 것

과 달리 광주전남에서만 이처럼 무소속이 약진하고 민주당이 힘겨워하는 것은 민주당이 투명하지 못한 공천으로 공천으로 지역민의 반발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임하면서 당보다는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하면서 과거의 민주당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장 강운태 전남지사 박준영

광주교육감 장휘국 전남교육감 장만채

한나라당 시도지사 후보 두자릿수 득표율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강운태 후보가 광주시장에, 같은 당 박준영 후보는 전남지사에 당선됐다. 관선 광주시장을 역임한 강 후보는 민선 시장 첫 도전에서 승리를 일궈냈으며, 박 후보는 수성(守城)에 성공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선거개표 결과 3일 새벽 1시 현재 광주시장 선거(개표율 15.5%)에서 민주당 강운태 후보는 59.48%의 득표율을 기록, 15.95%에 그친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를 가볍게 제쳤다.

전남지사 선거(개표율 57.5%)에서는 민주당 박준영 후보가 68.27%를 득표해 13.81%를 얻은 한나라당 김대식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하지만, 이번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에서는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한나라당 후보들이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려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지역 민심의 변화가 감지됐다.

한나라당에서는 1995년과 2002년 김동환, 이현의 광주시장 후보가 각각 10.07%와 10.80%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98년에는 아예 후보를 내놓지도 못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한영 광주시장 후보가 3.97%를 득표했다.

이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란 현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도 표를 주자는 전략적 투표가 이뤄졌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성향 후보들이 각각 승리하면서 향후 광주·전남 교육계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선 'MB교육 심판론'을 내세운 전교조 출신의 장휘국 후보가 34.6%로, 현 교육감인 안순일 후보(25.2%)를 10% 포인트 가까이 앞섰다.

전남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성향의 장만채 후보가 54.8%를 득표해 김경택 후보(22.0%)와 김장환 후보



<강운태 당선자>



<박준영 당선자>



<장휘국 당선자>



<장만채 당선자>

(17.5%)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겼다.

이처럼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들의 '약진'이 이뤄진 것은 현 정부의 영어몰입교육과 일제고사 실시, 우열반편성 등의 'MB교육'에 대한 열증이 커지면서 학부모들과 교사를 중심으로 한 유권자들의 교육계 변화 욕구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실업 56주년(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쁨으로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및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가스파·세기보청기

1388-8489-888-322-8108